

## 단독가구노인의 재산상속의식과 관련요인 : 개인특성과 세대관계특성을 중심으로

강 유 진<sup>†</sup>  
충신대학교 아동학과

### **Inheritance Types of Wealth and Related Factors among the Elderly Living Independently**

Kang, Yoo Jean<sup>†</sup>  
Dept. of Child Studie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what factors influenced the elderly's prospective inheritance types such as traditional, equal, practical, and non-inheriting type. The role of older parents' socio-demographic and intergenerational characteristics affecting a decision on each pattern was paid special attention to. I used the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from 10,469 older parents living independently in the '2008 Korean National Survey of Welfare Need in the Elderly'. Results showed that prospective inheritance types among the elderly were diverse. The type which pursues equal distribution of wealth to all the children emerges predominantly from them. Findings also suggested that inheritance types were associated with factors such as both individual and intergenerational variables. Furthermore, different factors had different impact on each type. Individual variables contributed more to equal types while intergenerational variables contributed to practical types. More interestingly, both individual and intergenerational factors affected non-inheriting types.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hat mechanisms will be operating through the process of inheritance, which social policies will be substituted for the inheritance, and what other variables will account for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ealth.

**Key words:** prospective inheritance types, the elderly living independentl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tergenerational characteristics

####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든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도 당연한 일

이다. 가부장적인 가족 가치관이 지배적인 전통 한국 가족에서 부모세대의 재산은 아들 중심, 특히 장남 중심으로 상속이 되고,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은 아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노부모를 부

접수일: 2012년 4월 17일 심사일: 2012년 6월 11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5일

<sup>†</sup>**Corresponding Author:** Kang, Yoo Jean Tel: 82-2-3479-0403  
e-mail: yoojin528@chongshin.ac.kr

양하고 조상 제사의 의무를 다하는 특징을 보였다(Kim & Park 2001). 이러한 전통적 재산상속방식은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지원교환, 즉 부모 부양, 상호도움, 연락 및 접촉 등을 통한 가족 간의 유대감과 결속감을 지탱시키는 동인이 되는 동시에(Cho 2003; Shin & Cho 2002), 노후에 가족 이외에 마땅히 기댈만한 지지체계가 부족했던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Kim 2008).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족의 모습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가족구조, 가족형태 등 가족의 외형적 측면 뿐 아니라 가족의 내적 측면, 즉 아들 중심의 부계직계혈연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좀더 양성 평등적이며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추세이다. 2005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법·제도적 차원에서도 전통적인 부계직계원리의 가족질서 대신 남녀 평등적인 가족질서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1991년 가족법 개정을 통해 가족 내 재산상속은 자녀의 성별 및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자녀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도록 상속법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20여년이 지난 지금 자녀균분상속원리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재산상속의 다양한 방식이 고려되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가족의 삶에 구체적으로 뿌리내려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중심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호주제 폐지와 자녀균분상속원칙이 이루어진 오늘날 변화하는 가족환경 속에서 재산상속의식과 태도 역시 변화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재산상속이 장남위주 혹은 아들위주의 전통적 상속방식에서 탈피하여 좀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재산상속방식이 장남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관계 질서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져 왔음을 감안한다면, 현대 사회의 가족의 변화는 재산상속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산상속방식을 연구의 중심에 두고 이를 변화하는 한국 가족을 투영하는 하나

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오늘날의 상속유형이 과연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를 탐색하되, 특히 이것을 노인들이 처한 각기 다른 가족관계, 특히 세대관계특성과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재산상속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법적 측면에서 재산상속문제들을 다룬 경향이며, 가족학 분야에서 재산상속의 이슈를 다룬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기존의 연구들(Cho 2003; Kim 2008; Kim & Park 2001; Lee & Kim 2001; Moon & Kim 1999; Shin & Cho 2002)은 주로 재산상속의 실태가 어떠하며, 각 상속방식별 노인의 특성은 어떠한지를 단순히 집단 간 차이분석으로써 규명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노인의 재산상속이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특히 이것을 세대관계특성과 관련시켜서 그 인과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상속의식을 주목하되, 이러한 상속의식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개인특성 뿐 아니라 세대관계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노인과의 자녀 간 세대관계특성들이 각 상속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을 둘 것이다. 첫째, 재산상속을 가족관계맥락과 연결시키기 위해 세대관계에 주목할 것이다. 특히 세대관계의 양적, 질적 차원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세대관계를 주목할 것이다. 세대관계의 양적 차원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노인과 자녀가 얼마나 활발히 교류하는가라는 사회적 지원을 말하며, 세대관계의 질적 차원은 자녀관계만족도와 노후부양관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 지원의 경우 노인이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지원 뿐 아니라,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 등 노인과 자녀간의 쌍방향적 자원교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파악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Cho 2003; Kim 2008; Kim

& Park 2001; Lee & Kim 2001)은 대부분 재산상속방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노인이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즉,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전제 하에서 재산상속방식을 장남/아들 위주의 전통적인 재산상속인지, 남녀평등적인 비전통적 재산상속인지 혹은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자녀를 더욱 고려하는 현실형의 재산상속인지 살펴보는 경향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녀 혹은 가족에게 물려주지 않는 ‘비상속형’ 재산상속방식까지도 포함시킬 것이다. 사회적인 노인부양체계가 미약한 우리 사회에서 재산상속이 노부모를 부양한 자녀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다. 즉, 노인의 재산상속과 자녀의 노부모부양행동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채, 가족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Cho 2003). 그러나 최근 노년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등 노부모 부양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분위기 역시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중심적 상속관행에서 벗어나 가족에게 상속을 하지 않을 노인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속형’ 재산상속의식을 가진 노인들은 과연 어떠한 개인적, 세대관계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셋째, 연구 대상을 단독가구노인에 한정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거주유형의 변화가 매우 두드러지면서 단독가구노인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규모로 이루어진 대규모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4년에 자녀동거 노인이 전체 노인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오히려 노인부부와 독거노인 등 단독가구노인들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Jung 2011). 점차 노년기에 거주 독립성을 강조하는 노인단독가구형태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노인의 거주형태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부계직계 가족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통적 동거형태가 아닌 단독가구를 이루고 사는 노인들은 재산상속방식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장남 혹은 아들 중심의 전통적

상속방식위주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상속방식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단독가구노인에게 한정하고 이들의 재산상속의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은 이들의 개인적 특성 및 세대관계의 특성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전국의 대표성 있는 자료인 ‘2008년 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우리 사회 단독가구노인의 재산상속의식이 전반적으로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기 다른 상속유형을 구분해 볼 것이다. 둘째, 단독가구노인들의 세대관계특성을 자녀와의 접촉정도, 사회적 지원의 교환양상 등 기능적 측면과 자녀관계 만족도, 노후부양관 등의 질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대상 노인의 세대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 각기 다른 상속유형에 속한 노인들의 특성이 개인특성과 세대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상이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각 상속유형에 속한 노인들은 어떠한 다양한 개인적 여건과 세대관계 맥락에 처해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우리사회의 재산상속과 관련요인

전통적 상속방식은 주요 상속인이 부계 직계 혈연이라는 점에서 ‘직계적’, 상속은 가족구성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그리고 주로 장남에게 더 많은 몫이 분배된다는 점에서 ‘불평등적’ 특성을 보인다(Cho 1992). 이를 통해 상속은 부계중심적인 한국 가족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상속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족이 어떠한 가족구조 속에서 어떻게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은 한국의 가족 문화의 중요한 키워드로써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 재산상속방식이 가족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존속해왔음을 감안할 때,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환경의 변화는 당연히 개 개인의 차원의 상속의식과 가족 차원의 상속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장남 혹은 아들 위주의 단일한 상속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방법의 상속방법과 상속의식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상속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재산상속방식과 상속태도의 실태를 탐색하는 것(Cho 2003; Kim 2008; Lee & Kim 2001; Park & Chung 2000; Shin & Cho 2002; Shin et al. 1997)들이 있다. 그 결과, 상속방식이 아들·딸 평등상속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 그러나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상속관행은 여전히 장남 혹은 아들 위주의 상속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라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들은 비록 조사 시점이 현재로부터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재산상속이 어떠한 변화의 흐름에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재산상속과 관련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Kim 2008; Kim & Park 2001; Moon & Kim 1999; Lee & Kim 2001; Shin & Cho 2002)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형태, 거주지역 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여건에 따라 재산상속이 아들 위주 상속, 균분 상속, 임의 상속 등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밝힌바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이 어떠한 여건에 처하느냐에 따라 전통적 상속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로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결국 이 연구들은 앞으로 재산상속에 관한 논의가 단순히 상속실태와 유형을 파악하는 작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상속과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Lee & Kim 2001).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 단순히 상속실태를 파악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각기 다른 상속의식이

나타나는지, 즉 다양한 상속의식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 때 상속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건으로써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노인이 성인자녀와 맺는 세대관계 속성에 초점을 둘 것이다. 먼저 개인적 특성의 경우 위의 선행연구들은 상속유형별로 노인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거주지역, 자녀수, 교육수준, 결혼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상이함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다양한 상속형태에 이러한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세대관계특성과 다양한 상속형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상속을 통해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가족원 간에 나타나는 의무와 도리는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은 가족 내 다이내믹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Cho 1992). 그럼에도 재산상속을 세대관계특성과 연계시킨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가족관계특성과 상속을 연결시킨 선행연구로서 가족원간의 친밀감 및 갈등이 상속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Kim & Park 2001), 가족가치관과 상속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Moon & Kim 1999), 그리고 상속유형 별로 사회적 지원의 제공주체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핀 연구(Kim 2008) 등 소수의 연구들이 있을 뿐이다.

이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소규모의 임의표집에 의한 것이거나 노인이 아닌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표성을 가진 노인의 자료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상속과 세대관계 특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주로 집단 간 차이 분석에 의존하여 단편적 실태 파악에 그쳤으며, 체계적으로 이들 변수 간의 과학적 인과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세대관계특성들이 상속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다항로지분석을 통해 상호간 인과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로써 다양한 세대관계특성이 다양한 상속의식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세대관계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 2. 노년기 세대관계특성

개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과 성인자녀 간의 세대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오늘날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성이 강조되는 가족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나 노인들의 삶에서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노인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성인자녀와의 끊임없는 상호교류 등을 통해 친밀한 가족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은 길어진 노년기의 행복과 만족을 유지하는데 매우 핵심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과 성인자녀 간의 세대관계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세대관계 특성을 정의내리는데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를 주목할 것이다. 첫째, 세대 간 가족유대를 어떻게 정의내리며, 어떤 요인을 세대관계로서 측정할 것인지에 관한 차원이다. 부모 자녀 관계는 어느 한 가지로 잘라 말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그 정의와 측정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Bengtson(2001)은 세대관계를 ‘결속’의 개념을 사용하여 6가지의 하위차원으로 설명한 바 있다. 6개의 하위차원이란 구조적 결속, 정서적 결속, 기능적 결속, 접촉, 합의적 결속, 규범적 결속 등이며, 이로써 부모-자녀 간 유대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 국내의 연구로는 Kim 등(2000)과 Park(2003)이 세대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근접성, 다양한 형태의 지원교환관계, 그리고 그 교환을 규정하는 규범성 등 세 가지 차원을 세대관계의 주요 하위차원으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Yoo(2011)와 Cheong(2001)은 주로 객관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어 접촉, 사회적 지원의 교환을 세대관계의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Han(1996), Choi(2004)는 세대관계를 객관적 형태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의 질 등 주관적 평가의 측면을 주목한 바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세대관계를 정의내리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대 간 접촉 및 물질적·비물질

적 상호 지원 등 기능적 측면 뿐 아니라, 세대관계의 질적 차원으로써 자녀관계만족도와 규범적 차원으로써 노후부양관 등을 세대 관계의 하위영역으로 다룰 것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노인의 상속의식을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는데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으므로, 가족관계의 다이내믹을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세대관계 요인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대 간 지원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이다. 부모가 노년기가 들면 중년의 성인자녀가 노부모의 주부양자가 되어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매우 당연한 생애과정으로서 받아들여져 왔다(Silverstein et al. 2006). 따라서 사회적 지원교환의 방향은 주로 노인이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노인을 지원의 수혜자로서 간주하여 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일방향적 관점을 벗어나 쌍방향적 관점에서 노인이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 역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즉, 많은 연구들(Agree et al. 2002; Cheong 2001; Frankenberg et al. 2002; Han & Hong 2000; Jun 2004; Jun & Jang 2003; Kim & Kim 2000; Kim et al. 2010; Lee 2003; Lee & Kim 2011; Min & Lee 2008; Silverstein et al. 2002; Stroller 1985; Verbrugge & Chan 2008; Walker et al. 1992; Yoon 2003)이 노인이 결코 일방향적 수혜자로서 안주하지 않으며, 생산적 활동 및 도움의 영역에서 지원의 제공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세대 간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는데 있어 노인과 자녀 간에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교환관계에 초점을 둘 것이다. 즉, 노인이 사회적 지원을 지원하는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수혜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상호 지원을 교환하지 않는 무교환관계 등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특정한 상속의식을 가진 노인은 자녀와 어떠한 지원교환관계를 맺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 경향을 주목하여 단독가구노인에게 초점을 둔다.

선행 연구들은 가족이 서로 떨어져 살더라도 이들끼리의 상호왕래와 접촉, 지원 등 유대는 꾸준히 이루어지며(Kim 2007; Cheong 2001), 우리나라 단독가구노인들은 외형상 자녀들과 분리되어 있을 뿐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한바 있다(Han 1996; Kang & Han 1997; Lee & Kim 2011; Park et al. 1995). 결국, 단독가구를 이루고 사는 노인들이라도 자녀들과 활발히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재산상속방식에 대한 태도 역시 전통적 재산상속유형을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상속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단독가구 노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상속의식을 살피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자료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자료인 ‘2008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이다. 이 조사는 2008년 6월부

터 2009년 1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생존 자녀가 있는 단독가구노인 10,469명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일반적 특성과 세대관계 특성, 그리고 상속의식에 관한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 2. 측정도구

##### 1)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인의 재산상속의식이다. 재산상속의식은 ‘2008년 노인생활실태조사’ 질문지에서 사용된 ‘어르신께서는 재산상속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항을 활용하였고, 이것에 대한 응답을 ‘평등형’, ‘전통형’, ‘현실형’, ‘비상속형’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상속유형을 측정하였다. ‘평등형’은 재산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고 응답한 경우로 아들·딸을 구분하지 않고 자녀간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Characteristic	Frequency(%)	Mean(SD)
Age		70.81(6.63)
Number of adult children		3.95(1.56)
Sex	Male	4,481(42.8)
	Female	5,988(57.2)
Subjective health	Very bad	1,315(12.6)
	Somewhat bad	4,966(47.5)
	Moderate	1,536(14.7)
	Somewhat good	2,428(23.2)
	Very good	209( 2.0)
Marital status	Currently married	6,989(66.8)
	Not married	3,480(33.2)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7,357(70.3)
	Above middle school	3,112(29.7)
Subjective economic status	Poor	4,874(46.6)
	Moderate	5,038(48.1)
	Good	539( 5.1)
Region	Urban area	5,967(57.0)
	Rural area	4,502(43.0)

평등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평등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전통형’은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아들에게만’에 응답한 경우로써 장남 혹은 아들 위주의 전통적 상속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통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현실형’은 ‘효도한 자녀에게’,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써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를 떠나 현실적으로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자녀를 임의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현실형’이라 명명하였다. ‘비상속형’은 ‘사회에 환원’, ‘가족과 사회에 나누어 상속하거나 환원’,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에 응답한 경우인데,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주지 않고 사회 혹은 본인을 위해 쓰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상속형’으로 분류하였다.

## 2) 독립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크게 노인의 개인특성변수와 세대관계변수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인특성변수는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결혼상태, 거주지역, 학력, 주관적 경제상태 변수들이다.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연령은 만 나이를 그대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을 1로 하고 ‘매우 좋음’을 5로 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연속변수로서 활용하였다. 결혼상태는 유배우는 1, 무배우는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고, 거주지역은 행정구역상 동부에 거주할 경우 1, 읍·면부에 거주할 경우는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이상은 1, 졸업 이하는 0으로 더미변수로서 코딩하여 다항로지분석에 투입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의 코딩의 경우 ‘어려운 편’은 1, ‘어렵지도 넉넉하지도 않음’은 2, ‘넉넉한 편’은 3을 부여한 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므로, 이것을 연속변수로서 다항로지분석에 투입되었다.

세대관계변수는 접촉, 사회적 지원 교환, 관계만족도, 노후부양관 등의 네 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각 차원에 적합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접촉영역은 연락 및 왕래빈도로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이 많아지는 연속변수로서 분

석에 투입하였다. 사회적 지원 교환 영역은 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경제적 지원 영역 등 네 가지 영역에서 노인과 성인자녀 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쌍방향 관계를 고려하여 세대관계를 유형화하였다. 세대관계 유형화를 위한 코딩은 다음과 같다. 일단 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영역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4로 하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두 개씩 묶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0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1로 코딩하였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준 적이 없다’와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의 문항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였으므로, 위의 사회적 지원 영역과 마찬가지로 도움을 주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0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으면 1로써 코딩하였다. 이로써 각 지원 영역마다 도움을 제공하면 1, 제공하지 않으면 0, 그리고 도움을 수혜하면 1, 도움을 수혜하지 않으면 0으로 코딩을 통일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대관계 유형을 ‘제공형’, ‘수혜형’, ‘무교환형’으로 나누었다. ‘제공형’은 도움을 제공한 경우, 혹은 도움의 제공과 수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도움제공자로서 노인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제공형’이라 명명하였다. ‘수혜형’은 도움을 수혜한 경우만을 말한다. 무교환형은 도움 제공과 수혜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항로지분석에 이 세가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기 위해 두 개의 더미변수인 D1(제공형)과 D2(무교환형)를 생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이 때 비교기준으로서의 변수는 수혜형이다.

자녀관계만족도는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문항으로써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만족하지 않다’를 1로 하고 ‘매우 만족한다’를 5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속변수로서 분석에 투입되었다. 규범성을 반영하는 노후부양관은 선행연구들(Kim 2005; Park 2003)과 마찬가지로 조사문항 중 ‘노후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선정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본인’이라는 응답에는

1, '자녀'라는 응답에는 2, '정부'라는 응답은 3을 부여하여 순서번호로써 분석에 투입하였다.

###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전반적인 조사대상의 특성 및 상속유형의 분포, 그리고 세대관계의 전반적 양상을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재산상속유형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두 개 이상의 범주형 변수이면서 각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할 때 사용된다. 이 때 종속변수 중 하나의 기준 범주를 정하여 이 기준 범주에 대한 각 범주들 간의 상대적 선호율을 분석하는 것이다(Kim et al. 2000). 본 연구는 다범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어떠한 개인적 특징과 세대관계 특성을 보이는 노인이 특정한 재산상속방식을 유지할 확률이 높은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IV. 결과 및 고찰

### 1. 단독가구노인의 재산상속유형의 전반적 양상

단독가구 노인들이 선호하는 재산상속방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Table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단독가구노인들에게서 가장 선호되는 상속 유형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평등형'이었다. 특히 '평등형'의 비율이 조사대상자의 거의 절반인 52.5%에 해당할 만큼의 그 비중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상속유형은 장남 혹은 아들에게 더 많은 상속을 원하는 '전통형'으로서 이것은 전체 응답자의 23.5%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제까지 재산상속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Kim & Park 2001; Lee & Kim 2001; Park & Jung 2000; Shin & Cho 2002)들이

여전히 아들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남기려는 전통적 재산상속방식이 선호된다고 보고했던 것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다만 최근 재산상속실태를 보여주는 조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들이 시간적으로 현재 시점과 다소 거리가 있는 자료들이라는 점을 결과 해석 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독가구노인에게만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소수의 임의적 표본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였다는 점 등 기존 연구와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점도 선행연구들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딸 및 출생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상속분을 물려주겠다는 '평등형'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우리사회 단독가구노인들의 재산상속관행이 아들 위주의 전통적 상속 방식에 얽매어 있지 않음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가족에게 유산을 남겨주려는 경향이 강했던 점을 감안할 때, Table 2에서 보듯이 재산을 가족 혹은 자녀에게 주지 않겠다는 '비상속형' 역시 적지 않은 비중(12.4%)을 차지하였다는 결과는 이러한 전통적인 상속관행을 더욱 벗어난 것이어서 더욱 흥미롭다.

이와 관련하여 Moon과 Kim(1999)은 중년기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산상속의식을 가족가치관과 연결시킨 바 있다. 그 결과 가족가치관이 좀 더 전통적일수록 아들 중심의 재산상속경향과 태도를 보였던 반면, 좀 더 현대적이고 민주적 가족가치관은 균분상속에 찬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시점이 본 연구보다 다소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점을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하면, 과반수 단독가구노인들이 공평하고 균분한 재산상속을 선호하였으며, 비상속형을 선호한 노인의 비중 역시 적지 않았다는 것은 변화된 가족가치관이 조사대상 노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장남 혹은 아들이테올로기에서 벗어난 비전통형의 상속의식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Table 2.** Frequencies of prospective inheritance types of wealth

Type	Frequency(%)
Traditional	2,384(23.5)
Equal	5,322(52.5)
Practical	1,170(11.6)
Non-inheriting	1,253(12.4)
Total	10,129(100)

**2. 노인의 세대관계의 전반적 양상**

세대관계의 전반적 양상을 빈도와 평균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단독가구노인들의 세대관계는 접촉 정도, 사회적 지원의 교환유형, 자녀관계의 질, 그리고 노후부양관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단독가구노인의 별거 자녀와의 접촉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노인들은 별거자녀들과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과 왕래를 1~7점 사이의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을 때 각각의 평균이 5.52와 4.46으로써 연락빈도가 왕래빈도보다 약간 높았다. 이러한 접촉빈도는 척도 상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독가구노인들이 비록 자녀들과 따로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비교적 자주 별거 자녀들과 접촉하면서 고립되지 않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Han 1996; Kang & Han 1997; Park et al. 1995)와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인 것이다.

둘째, 단독가구노인이 별거자녀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를 교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지원교환유형은 각 사회적 지원의 영역별로 상이하였다. 즉, 정서적 지원은 제공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 경제적 영역은 수혜형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도구적 지원과 신체적 지원의 경우 무교환형이 가장 많았다. 이와 비슷하게 선행연구(Agree et al. 2002; Han & Han 2004; Yoon & Cha 1999)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노부모가 성인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받는 것이 지배적이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는 은퇴 이후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독

자적인 삶을 지탱할 만한 공적 지원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성인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인자녀는 노인들의 수입의 주요 원천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결과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노인들의 실상을 단독가구노인들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하겠다.

반면, 정서적 지원은 ‘제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제공자’로서의 노인의 역할이 우세함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지원 영역별로 세대 간 지원교환유형을 살펴본 선행연구(Han & Han 2004) 역시 경제적 영역과 달리 정서적 영역에서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상호호혜적 교환관계를 주목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정서적 지원이란 심리적 위로의 차원으로서 물질적 교환과 달리 일방적 관계를 맺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에게 의존하는 관계 보다는 상호호혜성을 띤 교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면서,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영역에서 노인들이 의존적 위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지원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도구적, 신체적 지원영역은 경제적, 정서적 지원 영역과 달리 상호 도움을 주거나 받지 않은 채 교류를 하지 않는 무교환형의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세대 간 지원이 오고 가지 않는 것은 세대 간의 교류가 약화되어 노인이 고립되어 살아감을 의미하거나, 세대 간에 교환할만한 자원이 없음을 의미한다(Kim & Kim 2000). 도구적 지원과 신체적 지원의 교환은 그 성격상 일상생활에서 대면적 접촉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할 때,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이 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성격의 도움을 자녀세대와 교환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독가구노인이라는 거주형태의 특성으로 인해 자녀와 도구적, 신체적 지원을 상호 주고 받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단독가구노인들이 자녀와의 일상적인 접촉과 청소, 식사, 간병 등의 생활형 도움관계망에서 다소 소외됨을 의미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조사대상 단독가구노인들의 세대관계의

질적 측면으로써 자녀관계의 만족도와 노후부양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가 지각한 자녀관계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즉, 1-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3.78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스런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세대 관계의 규범성, 즉 노후부양관을 알아본 결과, 단독가구노인의 대다수가 노후 생활비 부담 주체로서 ‘본인’(61.0%)을 지목하였고, 그 다음이 ‘가족’(30.2%)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정부’(7.9%)

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1994년과 2004년에 실시한 <전국노인실태조사>와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전체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후생활주체에 대하여 물었을 때 개인책임의 응답비율이 약 45%이고, 사회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이 약 37%이었으며, 가족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18%에 불과했던 것(Kim 2005)과 비교한다면, 단독가구노인들만의 응답을 살펴본 본 연구 결과는 이와 다소 상이한 양상이다. 즉, 연구대상을 단독가구노인으로 한정하여 노후

**Table 3.** Distribution of intergenerational characteristics

Variable		Frequency(%)	Mean(range)	SD	
Contact frequency	Call	Seldom	62( .6)	5.52(1-7)	1.21
		Once or twice a year	121(1.2)		
		Once or twice every three month	243(2.3)		
		Once or twice a month	1,659(16.0)		
		Once or twice a week	1,712(25.9)		
		Three times a week	3,046(29.1)		
		Almost every day	2,550(24.4)		
	Visit	Seldom	93( .9)	4.46(1-7)	1.43
		Once or twice a year	769(7.3)		
		Once or twice every three month	1,708(16.3)		
		Once or twice a month	3,100(29.6)		
		Once or twice a week	2,222(21.2)		
		Three times a week	1,383(13.2)		
		Almost every day	1,094(10.4)		
Type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Affectional	Giving	7,524(71.9)	3.78(1-5)	.74
		Receiving	765( 7.3)		
		None	2,164(20.7)		
	Instrumental	Giving	2,369(22.6)		
		Receiving	2,684(25.6)		
		None	5,398(51.6)		
	Physical	Giving	2,069(19.8)		
		Receiving	3,253(31.1)		
		None	5,132(49.1)		
	Financial	Giving	2,332(22.3)		
		Receiving	5,989(57.2)		
		None	2,148(20.5)		
Satisfaction of adult children			3.78(1-5)	.74	
Attitudes toward primary participants of supporting old age	Society	832( 7.9)	3.16(1-5)	.74	
	Individuals	6,388(61.0)			
	Family	3,164(30.2)			

부양관의 실태를 파악한 본 연구 결과, 전체 노인들에 비해 단독가구노인들은 노후 부양주체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독립적 노후부양 태도를 보인 비율은 높았던 반면, 노후부양에 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응답비중은 이들에 비해 다소 약한 모습이었다.

### 3. 재산상속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인적 특성과 세대관계 특성을 중심으로

과연 재산상속유형과 노인의 개인적 특성, 세대관계는 상호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인가? 본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는 특정의 상속방식을 택한 노인들이 과연 개인적 특성과 세대관계 특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재산상속유형을 한꺼번에 고려한 채, 각 유형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다항로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Table 4는 다항로지회귀분석 결과이며 상속유형 간 비교기준은 ‘전통형’이다. 각 모형에서의 계수값은 기준집단인 전통형에 대비하여 평등형, 현실형, 비상속형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전통형의 상속방식을 선호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구분하는 주요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자녀수, 교육수준, 거주지역, 주관적 경제상태 등이었다. 세대관계 변수의 경우, 주로 접촉빈도와 도구적 지원, 경제적 지원교환, 그리고 자녀관계만족도에 따라 전통형과 비전통형의 노인들이 구분되었다. 전통형과 구분되는 개인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각 상속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형과 평등형을 구분 짓는 중요 요인은 주로 노인의 개인적 특성에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수, 학력, 거주지역, 경제상태가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즉, 평등형에 속한 노인은 전통형의 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좋고 자녀수는 더 적었다. 그리고 학력은 더 높고, 거주지역은 도시에 거주하며, 주관적 경제형편은 더 어려울 확률이 높았다.

또한 세대관계특성 중 평등형과 전통형을 구분 짓는 요인은 접촉 및 도구적, 경제적 지원 등

주로 양적 차원에서의 세대간 교류이었으며, 자녀관계만족도와 노후부양관 등 세대관계의 질적 차원과 규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평등형은 전통형에 비해 연락빈도가 더 낮고 왕래는 더욱 왕성할 확률이 높았다. 도구적 지원의 경우 무교환형이, 그리고 경제적 지원의 경우 수혜형이 평등형의 집단일 확률이 높았다. 결국 평등형 집단은 전통형에 비해 자녀들과 연락은 덜 하지만 그 대신 직접적인 왕래가 더 많으며, 자녀로부터 경제적으로 일방적인 도움을 제공받는 노인이 더 많았다. 그러나 전통형에 비해 평등형은 청소,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의 도구적 차원의 상호교류는 부족한 채 독립적 생활을 영위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전통형과 현실형을 구분 짓는 요인은 위의 평등형과 달리 주로 세대관계의 변수들이었다. 노인의 개인적 특성의 경우 학력과 거주지역만이 두 유형을 구별하는 요인이었던 반면, 접촉빈도, 도구적 지원, 경제적 지원, 자녀관계만족도 등 세대관계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이 현실형과 전통형을 구분짓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접촉의 경우 평등형과 마찬가지로 현실형 역시 전통형에 비해 연락빈도는 적은 반면, 왕래빈도는 더 빈번하였다. 또한 도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서 전통형과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적 지원의 경우 위의 평등형과 마찬가지로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수혜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반면, 도구적 지원의 경우 현실형의 노인들은 제공형과 무교환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즉, 현실형의 노인은 전통형에 비해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으나 일상적인 서비스 측면에서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제공하거나 아예 상호 교류를 하지 않는 등 더욱 독립적인 경향이었다. 또한 세대관계의 질적 차원인 자녀관계 만족도에서도 현실형과 전통형의 노인은 차이가 있었는데, 현실형의 노인이 전통형의 노인에 비해 자녀관계에 덜 만족한 경향이다.

셋째, 비상속형은 거의 모든 투입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평등형, 현실형과도 또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비상속형과 전통형의 노인은 개인적 요인과 세대 관계 요인 모두에서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가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선 개인적 특성을 비교하여 볼 때 비상속형의 노인은 전통형 노인과 비교하여 남자이며, 자녀수는 적고, 결혼상태는 무배우일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수준은 더 높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고 주관적 경제상태는 더 어려운 편에 속하였다. 이들의 자녀수, 결혼상태, 주관적 경제상태의 특성을 보면 비상속형의 노인은 전통형의 노인이 비해 노후에 활용가능한 개인적 자원이 좀 더 부족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의 특성을 보면, 앞서 평등형, 현실형 등의 다른 비상속형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좀 더 평등적이고 현대적 가족가치관의 성향과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세대관계의 특징을 전통형과 비교하면, 접촉, 사회적 지원, 자녀관계만족도, 노후 부양관 등 거의 모든 세대관계 요인들이 전통형과 구별되었다. 전통형에 비해 비상속형의 노인은 자녀들과 연락을 덜 하고,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이 무교환형인 노인들이었다. 신체적 지원의 경우 비상속형은 무교환형 뿐 아니라 계공형에 속할 확률 역시 높았다. 즉, 비상속형은 전통형에 비해 세대간 기능적 차원의 교류가 없이 다소 고립된 특성을 보였다. 반면, 경제적 지원은 앞서 평등형, 현실형과 마찬가지로 수혜형에 속할 확률이 더욱 높았다. 또한 세대관계의 질적 측면과 규범성의 측면에서도 비상속형은 전통형과 구분되었다. 전통형에 비해 자녀관계만족도가 더욱 낮으며, 노후 부양관은 정부나 본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등 보다 독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리하면, 평등형은 주로 노인의 개인적 특성에서 전통형과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노인의 개인적 여건이 평등형의 상속방식을 선호하는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반면, 현실형은 노인의 개인적 여건보다 주로 세대관계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현실형의 노인들은 자녀의 여건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효도의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의 자녀에게 선택적으로 상속하겠다는

노인들임을 감안한다면, 노인 개인이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의 세대관계 요소가 이러한 상속의식을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비상속형은 전통형과 비교하여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세대관계 특성 거의 모두에서 차별화되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매우 당연하게 여겨져 온 우리 사회에서 비상속형은 다소 생소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상속형의 노인은 보통의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노인과 분명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한편 상속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중심으로 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모든 상속유형에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력과 거주지역이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평등적 상속의식을 보인다는 것은 선행연구(Hong et al. 1995; Kim & Park 2001; Lee & Kim 2001)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적 관습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상속관행 역시 보다 전통적이며(Oh & Cho 2009), 이는 실증 연구(Lee & Kim 2001)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자녀수와 주관적 경제상태는 평등형과 비상속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통형에 비해 이 두 집단이 자녀수가 더 적은 것은 아마도 자녀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명의 자녀에게 한꺼번에 재산을 몰아서 상속하는 것이 정의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이 두집단은 전통형에 비해 주관적 경제상태를 더 어렵게 지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Kim & Park 2001; Moon & Kim 1999; Oh & Cho 2009)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속범위 및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예를 들면, 노인이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소유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Oh & Cho 2009).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경제상태를 더 어렵게 지각한 집단은 전통적 상속이데올로기라는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 여건을 더욱 감안하여 자녀에게 상속하려 하지

않거나, 평등한 분배를 원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세대관계 요인 중 상속방식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연락빈도와 도구적, 경제적 지원교환 등 주로 세대 간 기능적 차원의 변

수들이었다. 전반적으로 비전통형의 상속의식을 가진 노인들은 전통형의 노인에 비해 자녀들과 덜 연락하고 사회적 지원교환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유기적이고 친밀한 교류가 부족하고 좀 더 독립적인 양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경제적

Table 4.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predictors of each type of inheritance

Variable	Equal (vs.traditioanl)		Practical (vs.traditioanl)		Non-inheriting (vs.traditioanl)	
	b	s.e.	b	s.e	b	s.e.
Sex(male=1)	.058	.061	-.059	.088	.195*	.088
Age	-.002	.005	.002	.007	-.003	.007
Subjective health	.056*	.028	.015	.040	.075	.040
Number of adult children	-.095***	.018	-.035	.026	-.136***	.027
Marital status(married=1)	.113	.064	.004	.091	-.223*	.092
Education(above middle=1)	.359***	.068	.204*	.097	.430***	.094
Region(urban=1)	.320***	.058	.378***	.084	.398***	.085
Subjective economic status	-.237***	.049	-.097	.071	-.220**	.072
Call	-.090**	.028	-.113**	.040	-.100*	.039
Visit	.095***	.023	.109**	.033	.019	.033
Affectional						
D1	-.115	.101	-.265	.140	-.032	.157
D2	.039	.116	.028	.158	.425*	.170
Instrumental						
D1	.156	.083	.246*	.123	.127	.131
D2	.182*	.072	.289**	.106	.334**	.111
Physical						
D1	.060	.084	.115	.121	.554***	.127
D2	.029	.070	-.033	.101	.252*	.107
Financial						
D1	-.304***	.067	-.292**	.100	-.508***	.106
D2	.033	.076	-.072	.108	.019	.101
Satisfaction of adult children	.033	.042	-.130*	.058	-.306***	.056
Major participants of supporting old age(RC: family)						
Society	.188	.118	.182	.157	.429**	.153
Individuals	.056	.065	-.106	.092	.213*	.096
-2LL(df)			22205.708(63)			
X <sup>2</sup>			740.887***			

1) \*p<.05 \*\*p<.01 \*\*\*p<.001

2) D1 and D2 are dummy variables(D1: giving type=1, others=0, D2: none=1, others=0).

3) RC: reference category

인 측면에서는 전통형에 비해 비전통형에 속한 세 집단이 자녀의 일방향적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자녀와 교류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자녀관계만족도의 효과는 현실형과 비상속형 노인에게서만 나타났으며, 전통형에 비해 자녀관계만족도가 더 낮았다. 이와 비슷하게 선행연구(Moon & Kim 1999) 역시 자녀와의 애착정도를 낮게 인지할수록 자녀 보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을 더욱 지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관계의 규범성을 보여주는 노후부양관의 경우 오로지 비상속형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사실, 평등형과 현실형의 경우 아들위주의 상속관행을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비상속형과 마찬가지로 비전통적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전통형과도 유사한 맥락에 닿아 있다. 이에 비해, 비상속형의 경우 아예 가족에게 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히 전통적 상속관행에서 벗어난 상속이다. 그러므로 비상속형은 다른 상속 유형과 매우 상이하게 노후에 대한 가족책임의식을 덜 강조하고, 그 대신 개인 혹은 사회책임을 강조하는 독립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결국 이상의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 단독가구 노인들이 무조건 전통적 상속규범을 일률적으로 따르기보다 개인적으로 처한 현실적 여건, 그리고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얼마나 애정적 유대감을 느끼는지 등 세대관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속방식을 고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8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 단독가구노인들의 재산상속의식이 얼마나 다양한지 주목하고, 이들의 상속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세대관계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특성들이 다양한 상속의식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독가구노인들의 상속의식이 얼마나 다양하며, 이들이 선호하는 상속유형의 분포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속의식을 평등형, 현실형, 비상속형, 전통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평등형은 아들·딸 구분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평등한 상속을 염두해 두는 유형이고, 현실형은 자녀의 경제적 형편 혹은 자녀의 효행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상속하려는 유형이고, 비상속형은 가족에게 상속하지 않으려는 유형이며, 전통형은 장남 혹은 아들위주의 전통적 상속관행을 따르는 유형을 말한다. 그 결과 단독가구노인들은 장남 혹은 아들 위주의 전통적 상속관행 보다 평등형, 비상속형 등 비전통적 상속을 더욱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가족 내 재산상속의 의미가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과거의 재산상속관행이 부계직계혈연의 유지 등 가족주의 가치관과 밀접한 연결성 상에서 아들 위주의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화된 상속의식은 향후 상속관행이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별개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의 의미와 가족의 범위 등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상속관행에서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둘째, 상속의식과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다항로지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다양한 상속유형들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구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전통형에 속한 노인들과 비전통형의 상속의식을 가진 노인들은 개인적 특성과 세대관계 특성의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되었으며, 비전통형의 각기 다른 세 가지 유형인 평등형, 현실형, 비상속형 역시 그 특성들이 각각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평등형의 노인은 세대관계 특성 보다 주로 노인 개인적 특성에서 전통형의 노인과 구분되었음에 비해, 현실형의 노인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세대관계의 특성에서 전통형 노인과 구분되었다. 특히 비상속형은 평등형, 현실형과 또 달리 개인의 특성과 세대관계특성 모두에서 전통형의 노인과 분명히 차별화되었다. 이들은 일상적 접촉, 청소, 식사 등 일상생활의 기능적 측면에서 자녀들

과 상호적 도움교환의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은 채 자녀와 교류하지 않고 고립되어 살고 있었으며, 노후부양관 역시 다른 상속유형에 비해 가족 책임 보다 개인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의식하는 등 보다 독립적 성향을 보였다.

셋째, 상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과 세대관계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중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은 모든 상속유형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이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비전통적 상속의식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와 더불어 자녀수와 주관적 경제상태 요인이 상속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만하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비전통형 상속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것은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소자녀 가족에서 상속관행은 좀 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며, 미래 가족에서는 가족 내 상속이 현재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수록 전통적 상속보다 비전통적 상속을 선호하였다. 이것은 상속방식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노인의 현실적 여건이 전통적 명분을 따르고자 하는 의식보다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상속하는가에 있어서 명분 때문에 어느 하나의 규범적 형식을 따르기보다 노인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상속유형별 세대관계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통형과 비전통형을 구분 짓는 중요한 세대관계 요인은 주로 세대관계의 기능적이고 양적 차원인 연락과 사회적 지원 교환 관련 변수들이었다. 전통형에 비해 비전통형의 노인들은 자녀들과 덜 연락하고 도구적 지원에 있어서 무교환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경제적 영역의 경우 비전통형에 속한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전통형 노인에 비해 자녀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수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

았다. 이처럼 비전통형의 단독가구노인들은 전통형의 노인에 비해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방적 수혜를 통해서라도 자녀와 상호교류를 유지하고 있음에 비해, 일상생활 측면에서는 자녀와의 접촉이나 소소한 도움교환이 뜸한 채 좀 더 독립적 혹은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대관계의 질적 차원으로서 자녀관계만족도와 규범적 차원으로서 노후부양관의 경우 현실형과 비상수형의 노인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현실형과 비상수형의 자녀관계만족도는 전통형에 비해 더욱 낮은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자녀관계에 만족하지 않을 때 효도를 한 자녀거나 돈이 필요한 자녀 등 현실을 고려하여 상속을 하거나, 아예 자녀에게 상속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등 전통적 상속방식에 얽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녀 관계의 친밀성이 자녀의 성별이나 출생순위 등 전통적 상속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노인이 임의적으로 상속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부양관의 경우 비상수형에게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즉, 비상수형은 전통형에 비해 노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혹은 개인책의식이 강하고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약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노부모의 재산상속은 자녀의 부양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무래도 재산을 물려주는 특정 가족원이 없는 비상수형의 노인은 평등형, 현실형 노인보다 상이한 부양상황에 처한 집단이다. 즉, 비상수형은 다른 비전통적 상속유형과 또 다르게 자녀의 부양행동에 대한 기대감이 적을 수 있다. 이에 비상수형은 가족에 의존하는 전통적 노후부양관 대신 사회 혹은 개인적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의식하는 독립적 성향을 보인 것이라 추측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결과 역시 미래 사회의 상속은 전통적 장남·아들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노인의 현실적 여건 및 부모자녀관계 속성에 따라 다양해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이것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역시 앞으로 상속을 둘러싸고 다양한 맥락과 동기, 관련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상속을 자녀의 부양과 관련시키는 작업 뿐 아니라 상속의식의 이면에 작용하는 상속 동기 등, 상속의 메카니즘을 복합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들은 가족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상속을 논의하는 작업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의 경제적 복지와 상속의 관련성, 사회적 차원에서의 부의 재분배 효과 등 상속의 사회적 영향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지평을 보다 넓혀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상속유형 별 세대관계 양상이 차이가 있었는데, 비전통형의 노인은 전통형에 비해 세대간 지원의 주고 받음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고립된 모습이었다. 특히 이 중 비상속형의 경우 자녀와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으며 상당히 독립적인 노후부양태도를 보이는 등 다른 비전통적 상속형 보다 더욱 독립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상속과 노후부양을 둘러싼 부모-자녀간의 의존성과 의무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한다. 전통적 상속관행이 부계혈연중심의 가족가치관과 같은 연결선 상에 있으면서 노인에 대한 자녀의 부양행동의 보상으로써 작용하였다면, 미래 한국사회에서 나타날 다양한 상속은 이러한 부모자녀 상호의존적인 가족가치관과 별개로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자녀를 대신하여 노후보장의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시점에 왔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동일선상에서 최근 노후대책으로써 역모기지제도 등 연금제도의 실효성을 상속성향과 관련시킨 연구들(Oh & Cho 2009; Yoo & Gu 2005)이 수행된 바 있다. 향후 상속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서 가족의 상속문제를 사회의 노년기정책들과 연결시켜서 이들의 유기적 상호영향력을 탐색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상속의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 노인들은 자녀에게 물질적 자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경향이 크

다. 그러므로 세대관계의 맥락에서 상속행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상속과 세대관계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다른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2차 분석을 하다 보니 투입변수들의 선택과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속 연구들은 상속과 세대관계 변수들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방법론 적으로도 이들 간 복합적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상속을 받는 입장인 중년 자녀의 여건 역시 고려하여 상속과 자녀의 특성을 연결시키는 연구 역시 흥미로운 것이다. 또한 상속의식 뿐 아니라 상속자산의 규모 등 구체적인 상속분을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족 내 이루어지는 상속의 배경에 어떠한 복잡한 다이내믹이 작용하는지를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Agree EM, Biddlecom AE, Chang MC, Perez AE (2002) Transfers from older parents to their adult children in Taiwan and the Philippines. *J Cross-Cultural Gerontology* 17, 269-294.
- Bengtson VL (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bonds. *J Marriage and Family* 63, 1-16.
- Cheong KW (2001) Family ties between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living in separate households: Social support from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Korea J Population Stud* 24(1), 123-148.
- Cho BE (2003)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tterns of caregiving for aged mothers and inheritance between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A comparison between the aged mothers and caregiving daughters/daughters-in-law. *J Korea Gerontological Soc* 23(3), 161-176.
- Cho JM (1992) A study on inheritance of wealth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S. *Korean J Sociology* 24, 87-110.
- Choi HJ (2004) The impact of types of grandparent caregiving on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grandparents and adult children. *J Korea Gerontological Soc* 24(3), 31-49.
- Frankenberg E, Lillard L, Willis RJ (2002) Patterns



-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Southeast Asia. *J Marriage & Family* 64, 627-641.
- Han KH (1996)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of the rural elderly who live apart from their children. *J Korea Gerontological Soc* 16(2), 21-38.
- Han KH, Hong JK (2000)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s and the elderly well-being. *Family and Culture* 12(2), 55-80.
- Han MA · Han KH (2004)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ult children in Korea. *J Korea Association Family Relations* 9(1), 135-152.
- Hong KS, Kim SM, Kim YJ (1995) Who are likely to leave a bequest among older Americans?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 13(2), 45-55.
- Jun HJ (2004) Providing informal support to others and mental health among older adults in Korea. *J Welfare Aged* 26, 337-361.
- Jun HJ, Jang DM (2003) Providing social support to others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ong older women in USA. *J Welfare Aged* 22, 151-173.
- Jung KH (2011) Old-age families in Korea: Prospect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Welfare Policy Forum* 175, 35-44.
- Kang YJ, Han KH (1997) Support for the elderly parents: focused on the role of the children who live apart from their parents. *J Korea Gerontological Soc* 17(1), 271-288.
- Kim CS (2005) Changes in attitudes of Korean elderly parents toward old-age support, 1994-2004. *J Korea Gerontological Soc* 25(4), 1-11.
- Kim CS (2007) Living arrangement transition in old age. *Korea J Population Stud* 30(1), 1-24.
- Kim CS, Kim IK (2000)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and the life satisfaction. *J Korea Gerontological Soc* 20(2), 155-168.
- Kim DS, Park KS, Lee SY (2000) Generational relationship of the middle aged to the elderly parents and their attitudes on old-age security. *Korea J Population Stud* 23(1), 55-89.
- Kim HJ, Lee JE, Han SM (2010) Effects of the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on the successful aging. *J Welfare Aged* 47, 265-288.
- Kim HK (2008) Inheritance and social support from children among Korean elderly. *J Korea Gerontological Soc* 28(2), 309-323.
- Kim KK, Park HI (2001) Th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inheritance of asset and ancestral rites among urban families.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 19(1), 269-281.
- Lee HS (2003)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exchang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ural elderly: Sex and age group difference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41(4), 57-69.
- Lee JU, Kim MJ (2001)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inheritance among married people of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 19(4), 151-165.
- Lee SY, Kim EJ (2011)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patterns and their correlates between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ir adult children. *Family and Culture* 23(1), 105-136.
- Min KC, Lee JH (2008) Effects of providing support to informal social network on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J Korea Gerontological Soc* 28(3), 515-533.
- Moon YS, Kim YH (1999)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property inheritance of the Korean family. *J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 17(2), 157-171.
- Oh HJ, Cho DH (2009) The analysis of succession propensity of the rural elderl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Korean J Local Government Stud* 13(2), 93-108.
- Park KS (2003) Diversity and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Elderly parents-adult children relations in Korea. *Korea J Population Stud* 37(2), 61-94.
- Park KR, Jae MK, Oh CO (1995) The actual family life and the needs of the elderly women living alone or with the spouse: With a focus on family, consumer and housing life. *J Korea Gerontological Soc* 15(2), 117-139.
- Park MH, Jung JW (2000) An exploratory study of household inheritance based on ethnographic approach.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38(2), 91-107.
- Shin HY, Cho BE (2002)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caregiving and inheritance by family status. *J Korea Gerontological Soc* 22(2), 95-111.
- Shin HY, Cho BE, Walker AJ (1997) A comparative study on caregiving and inheritance patterns : Korea vs. U. S. A.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 15(4), 125-136.
- Silverstein M, Conroy SJ, Wang H, Giarrusso R, Bentson VL (2002) Reciprocity in parent-child relations over the adult life course. *J Gerontology* 57B(1), S3-S13.
- Silverstein M, Gans D, Yang FM (2006) Intergenerational support to aging parents: The role of norms and needs. *J Family Issues* 27, 1068-1084.
- Stroller EP (1985) Exchange patterns in the informal support networks of the elderly: The impact of reciprocity on morale. *J Marriage & Family* 47(2), 335-342.
- Verbrugge LM, Chan A (2008) Giving help in return: Family reciprocity by older Singaporeans. *Aging & Soc* 28, 50-34.
- Walker AJ, Pratt CC, Oppy NC (1992) Perceived reciprocity in family caregiving. *Family Relations*

- 41(1), 82-85.
- Yoo HJ (2011) A longitudinal study on the typology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later life(1): Focused on the mode of change. *Korea J Family Social Work* 31, 87-111.
- Yoo SJ, Gu BY (2005) A study on the preception of the older'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Korea Spatial Planning Rev* 45, 119-143.
- Yoon H, Cha HB (1999) Future issues for family care of the elderly in Korea. *Hallym International J Aging* 1(1), 78-86.
- Yun HS (2003) The impact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to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J Korea Gerontological Soc* 23(3), 15-28.